지역 소식통

정읍시,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모의 훈련

정읍시는 27일 공감플러스센터 3층 드림마루에서 '2023년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해외 유입 감염병의 증가 위기에 따라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 유입 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 직원의 실전 대응능력 점검, 환자 발생 시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 등 위기 대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을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메르스 역학적 특성과 대응방안'에 대한 호남권질병대응센터역학조사관 강의 △메르스 의심환자 역학조사, 확진자 관리 등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토론기반 훈련 △메르스 대응 관련 역할극 및 퀴즈 등 실행기반 훈련 △개인보호복(레벨D) 착·탈의 훈련 등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17종 추가 선정

부안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17종을 추가 선정하고 공급업체와 계약체결까지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추가 선정된 답례품은 △무항생제 한돈꾸러미(부안로컬푸드) △가공식품으로 생강청, 굳지않는 떡, 슬지네찐빵, 오디가공품, 김치, △관광체험권으로 물놀이장 이용권, 선상낚시 및 요트 체험권, 오디수확체험, 위도 치유의 숲 체험권, △지역서비스로는 벌초대행서비스, △생활용품으로 참뽕 죽염비누와 반려동물 비누 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할 경우 추가 답례품을 포함해 총 70여종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신규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ibvegohyang.gokr)'을 통해 7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군은 지난달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공모해 지난 13일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2023 고창갯벌축제' 성료

만돌갯벌체험장서 노르딕워킹·해양호흡 등 치유프로그램 큰 호응… 45000여명 방문

2023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고창군 심원면 만돌갯벌체험장에서 열린 '2023 고창갯벌축제'가 지난 2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축제 위원회에 따르면 23일부터 사흘간 축제장을 방문한 방문객 수는 총 4만5천여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창갯벌축제를 다녀갔다.

고창군과 축제 위원회, 만돌지역주민들은 축제장을 찾을 수많은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회의와 요리 연습을 하는 등 2달여간 이상 많은 공을 들였다.

이번 축제에는 여느 해와 비교하여 노르딕워킹, 해양호흡 등 으로 구성된 해양치유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만큼 풍천장어 무료시식, 시중가보다 5000원이상 할인 된 가격에 장어를 판매하는 등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올해는 갯벌체험객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축제장 내 본부식당에서 꼬막비빔밥, 동죽전, 해물칼국수 등을 할인된 가격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질 좋은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다는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예년과 비교해 150여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동시에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이동하여 도로가 막히는 것을 해소하고 축제장 환경이 쾌적해졌다는 평가 받았다.

고창군 해양수산과 서치근 과장은 "고창갯벌축제를 찾아와주신 많은 분들이 만돌갯벌축제장에서 보고, 맛보고, 즐기고 하실 수 있었던 만큼 보람 있었다"며 "다음해에는 더욱 풍성하고 안전한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역사회 발전전략 시스템으로"

정읍 소재 연구기관 지역발전전략 브레인스토밍 회의 개최

정읍시는 27일 김형우 부시장을 좌장으로 제2분기 '지역발전전략 브레인스토밍'을 개최했다.

'지역발전전략 브레인스토밍'은 시가 지역 내 연구기관과 지역협력 방안 도출과 국가예산사업 발굴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모든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진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15년 연구개발특구로 출범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3대 국책연구기관과 연구재단법인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 전북대 수의과대학 교수진이 참여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실효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정읍 소재 연구기관의 연구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기관 융복합 R&D 지원사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효과 창출을 위한 연구기관의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들은 이후에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연구기관 간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시와 연구기관의 동반성장이 가능한 정책개발을 충실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우 부시장은 "이번 회의가 지역현안 협력사업 발굴, R&D 지원,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 기업육성과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모델로 발전해 시와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지역사회 발전전략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규모 27억 7000만원으로 확대

정읍시, 대출이자 이자 지원도 1억원 추가 확보지원

정읍시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대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전북신용보증재단(정읍지점)에 시가 예산을 출연해 영세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증제도이다.

당초 정읍시는 1억 5000만 원을 출연해 영세소상공인에게 16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지원해 왔었다. 이후 시는 소상공인의 대출수요 증가로 제1회 추경에 출연금과 대출이자 지원금을 각 1억 원씩 추가 확보해 대출 지원규모를 27억 7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보증한도는 사업장당 3000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최장 5년이다.

대출이자는 융자금 이자액 중 연 2% 초과분을 시에서 전액 지원하며, 상환방법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보증상담 및 신청·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539-5615)과 전북신용보증재단 정읍지점(☎533-64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가 시행이 고물가?고금리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벗님넷 포레도 치유센터 개소

27일 벗님넷 포레도(대표 함은미)는 치유센터 개소식과 제 1회 치유농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치유농업분야 관계자 및 도시농업전문가, 청년농업인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국 치유농업 모델 및 현황을 소개하며 국내 치유농업의 공동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부안군 동진면에 위치한 벗님넷 포레도는 2023년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치유관광지 10선에 선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체로서 전북 치유관광지 공모사업을 통해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안전과 휴식, 건강 중심의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수요에 초점을 맞춘 잠재력 있는 민간 치유관광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위치한 벗님넷 포레도는 3대째 야생화와 조경수를 생산하며 야외정원, 온실정원, 텃밭정원 등을 조성하여 농촌교육농장, 방과후마을학교를 운영하며 남녀노소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원예체험 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장성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완료

고창군이 지역의 대표적 위험도로인 양고살고개(석정-백양사IC)를 대체하는 고창-장성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완료돼 본격 개통된다고 27일 밝혔다.

고창읍 석정리에서 전남 장성군 북이면 달성리 구간 국가지원지방도 15호선은 고창에서 호남고속도로 및 국도 1호선과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다.

하지만 겨울철 상습 결빙과 급커브, 급경사 등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강설시 통행이 제한되는 등 개선이 시급했다.

확포장 공사는 전라남도에서 총사업비 449억원을 투입해 2018년부터 추진해 왔다. 기존 7.8㎞ 장거리 급회전구간에 대해 터널 2개소(895m)를 포함 5.97㎞ 직선구간으로 단축하는 등 이동시간과 도로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번 공사완료로 그동안 서해안고속도로에 편중되어 있던 고창군의 광역교통망이 호남고속도로(백양사IC)로 접근성이 개선되어 이원화 된다. 관광객 증가와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편하고 안전한 교통망 확충으로 고창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주민소득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고창~내장산IC간 지방도, 해리~부안간 국도 확포장공사 등 주요도로 건설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발길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운영

부안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기온 상승에 따른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증가에 대비하고 식중독으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5개월간(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

식중독 등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은 주로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에 의해 감염되며 환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 또는 환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 발생 된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생활화,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거나 껍질 벗겨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하지 않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생선고기 채소 도마 분리 사용 등이다

박찬병 부안군보건소장은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인 여름철에는 안전한 음식물 섭취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 실천을 강조하며 감염병 7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안=김석진기자